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5~7/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안부(산승이마음으로전하는)	지안스님	(주)조계종출판사	6	눈부신오늘	법상스님	마음의숲
2	영원한자유의길(재개정판)	성철스님	장경각	7	남을위해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3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별칭'혜인	여백	8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열린책장' 효림	
4	꿈을깨면 내가부처	서암스님	정도	9	좋은사람으로사는법	틱낫한	김영사
5	신사에출로앉아	일운스님	모파나무	10	심심한생각재우기(업서컬러링북)	아름다운인연	누동방



저자 호진 스님과 대화 -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 경주 기림사 동암을 가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1972년에 해외로 나가 여행을 하거나 공부하는 일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불교의 항학열 하나로 결망 하나만 짚어내면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스님이 있었다. 주인공은 前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호진 스님이다.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학사 및 석사를 마친 뒤 도솔(渡佛)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힘든 결정이었다. 이런 거창한 여정에 비해 스님의 유학 동기는 의외로 우연하고 간단했다. 당시 동국대서 동문수학하던 로제 르베리에(Roger Leverrier, 한국명 여동찬) 교수의 권유에 의해서다.

2년동안은 빼빼꼬비르 가톨릭수도원서 수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프랑스어를 배우다가, 1974년 파리에 입성했고 이후 1976년 프랑스 정부 장학금으로 소르본 대학에 정식 입학할 때까지 산스크리트어를 배웠다. 강의가 없을 때는 도서관서 불교학 자료를 정리하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토대를 닦았다. 스님의 공부는 구도역정과 같이 치열했다. 스님의 공부는 구도역정과 같이 치열했다. 스님의 공부는 구도역정과 같이 치열했다. 스님의 공부는 구도역정과 같이 치열했다.

이 논문을 스님은 학위 취득 후 10년 뒤인 1991년에 우리말로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에서 스님의 논문 주제인 무아·윤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책이 출간된 뒤 '무아·윤회'에 대한 관심이 점화돼 관련 소논문과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다시 24년이 흘렀다. 그리고 최근 <나선비구경의 무아·윤회> 문제를 고찰한 호진 스님의 박사 논문이 1년에 걸친 시간을 거쳐 재 출간됐다.

스님은 '다시 쓰는 머리말'에서 "이 책이 '30대의 학생이 쓴 논문'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며 "처음의 논문과 달라진 것은 <우빠니샤드>의 윤회와 해탈, 그리고 초기불교의 무아와 열반에 관한 곳

이다. <우빠니샤드>에 나타난 윤회와 범아 일여(梵我一如) 문제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욱 깊이 탐구했고, 초기불교 부분은 핵심에 있어서는 전과 동일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했다."고 밝혔다. 2000년 퇴직 후에도 스님은 공부에 대한 열정을 계속 불사르고 있다. 경주 기림사 경내의 동암에서 '불타전(佛陀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중인 호진 스님을 6월 30일 인터뷰 했다. 원래 인터뷰에는 인물사진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지만, 한사코 내세울 것이 없으며 거절하는 노 스님의 학자적 소신을 존중하기로 했다.

△무아설과 윤회설은 서로 다른 바탕서 이루어져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양립할 수 없지만 또 양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아설과 윤회설은 불교를 지탱하는 두 핵심 기둥이다.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이 두 설의 양립 문제는 해결 못했다. 그 결과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면서 불교는 여러 부파로 나뉘었다. 부파불교서 제기된 여러 이론을 종합 정리해 무아설과 윤회설의 양립을 시도한 경전이 바로 <나선비구경>이다. 이 경전서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해 불교의 여러 이론은 더욱 발전을 거듭했다. 내 연구도 이 연장선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양립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불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답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책 처음 머리말에 '완벽한 이론은 없다. 역사적이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란 전제를 두었다.

△<나선비구경> 즉 <밀란다양문경>서 굳이 무아와 윤회의 해답을 찾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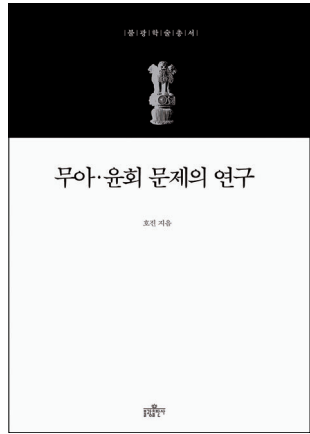
— '무아와 윤회의 문제'를 말할 때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나선비구경> 또는 빨리어본 <밀린다뽕하>의 설명에 의거한다. <나선비구경>은 정통 경전도 아니고 부처님 열반 후 500년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경(經)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아와 윤회 문제에 대해 <나선비구경>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에서는 바로 이 <나선비구경>서 설명한 무아설과 윤회설의 내용은 어떤지, 두 교리를 어떻게



사진은 경주 기림사 경내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암자인 동암. 이곳에서 호진 스님은 '불타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중이다. 인터뷰 사진을 스님이 극구 사양해서 겨울 동암의 자료사진을 썼다.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 호진 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2만 8천원



<나선비구경>, 무아·윤회 양립 시도
양립 해결책... 뽕갈라·식·상속설 등
소로본 박사 논문 24년만에 재 개정
<우빠니샤드> 윤회와 '범아일여' 보충
한국 철학계의 열띤 주제로 점화

적절히 양립시키지는, 초기경전서 실한 내용과 비교해 얼마나 교리적으로 튼튼한 근거를 갖는지 등에 대해 연구했다.

△<나선비구경>은 어떤 경전인가

—이 경전의 명칭에 보이는 나선은 비구의 이름으로 원어는 나가세나다. 나가세나와 밀린다왕이 불교에 관해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적인 교리문답서이다. 이 문답서가 저술될 당시 널리 알려진 밀린다왕을 화자의 한 사람으로 차용해 경의 권위를 높였을 뿐, 이 경은 당시 최고의 논사들이 여러 부파의 교리를 이용해 무아설과 윤회

이루는가를 묻는 것이다.

불교 내부에서도 무아설은 윤회의 주제 문제와 관련해 이미 초기불교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으며, 그 문제를 해결기 위한 여러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서 많은 부파로 나뉘게 되었다. 즉 부파불교의 주요 성립 원인중 하나가 바로 무아설과 윤회설의 양립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수많은 불교사상가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에 무아 윤회설은 인도의 다른 어느 종교나 철학에서보다 불교에서 가장 정교히 발달했다.

△무아설을 주장하면서 생긴 윤회의 주제에 대한 초기경전서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초기불교 문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인 <아함경>을 중심으로 불교의 핵심교리인 무아설과 윤회설의 의미와 구조, 실천 등 여러 면에서 고찰했다. 윤회설이 일으킨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된 교리들, 그리고 무아·윤회의 양립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무아설을 주장하면서 생긴 윤회의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초기경전서 내놓은 해결책은 뽕갈라설, 식(識)설, 상속(연속)설의 세 가지였다. 초기불교에서는 아직 '설(說)'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전들이 만들어졌다. 부파불교에서는 이 경전들의 내용이 확대 발전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說)이 이뤄지게 되고 그 설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모여 각각의 부파를 만들었다. 뽕갈라설을 택한 사람들은 독자부와 정량부(正量部)를 이루었고, 식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분별설부와 이 부파서 갈라진 화지부, 장로부 등 대부분의 상속설을 수용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와 경량부 못지않게 오래도록 번창했다. 이 사실은 초기·부파불교에서 윤회의 주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선비구경>에 나타난 무아·윤회설의 내용을 요약하신다면?

—<나선비구경>에서도 초기경전의 경우처럼 윤회의 주제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뽕갈라설, 식설, 상속설이 언급되었다.

베다구로 표현된 뽕갈라는 나가세나의 조리 정연한 논법에 의해 여지없이 반박되었다. 그러나 식설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무아설을 역설한 <나선비구경>이 윤회의 주제로 식(識)을 인정할 수 없던 것은 당연하지만 뒷날 빨리어본 <밀린다뽕하>의 추가 부분에서는 재생의 주제 역할을 하는 식이 등장하고 있다. <나선비구경>이 수용한 것은 상속설이었다.

<나선비구경>의 무아설과 상속설은 초기경전서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먼저 육체의 32부분과 수레(車)를 구성하는 열 가지 부분품의 비유를 통해 인간 존재에 실제적인 '아(我)가 없다는 것(無我)'을 설명했다. 나가세나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뽕갈라(또는 베다구)와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업(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현재의 존재가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다음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가세나는 실제적인 주제 없이 윤회하는 것, 즉 '무아·윤회'를 위해서 등불과 우유의 비유를 들었다. 등불을 켜면 초저녁에서 새벽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나 초저녁 불꽃에서 새벽 불꽃으로 변하지 않고 옮겨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시 우유가 낙(酪)과 생소(生)를 거쳐 제호가 되는 과정서 변하지 않고 옮겨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나가세나는 한마디로 "존재(dharma)의 연속은 계속된다. 하나가 나타나면 동시에 다른 것은 사라진다. 이를테면 그것들 사이에는 앞서서 것도 뒤따르는 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저자 호진 스님은?

1964년 직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대학원서 불교학을 전공했다. 이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철학과서 초기불교를 전공한 뒤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 불교학과서 2000년까지 초기·부파불교를 강의했다. 저서로는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를 비롯해 <Le paradi d'le de l'Amour et du sam, sara dans le s'ofia du bhikkhu N'ogayana(佛舍本)> <인도불교학사> <경에서 쓴 편지> <공제(인도불교사)> <1-2(번역)> <아소카왕 비문(공역)>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불교의 노동문제> <윤회 이론의 기원> <불멸연고(佛滅年代考)> <나선비구경 연구> <1(초기불교전선연구)> <1-2(Asoka 왕과 불교)> <Menandros 왕의 불교 개종 문제> <불교의 죽음 이해> 등 다수가 있다.

화엄수행자 진귀(眞歸)와 차 한잔의 친견만 해도 말기암의 암성통증과 병의 등등 일체고통 들이,... 어떤이는 줄어들고 어떤이는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불신(不信)의 마음밖에 갇힌 말법시대에 과연 이런일들을 믿을수 있는지? 백천만겁난조우의 진귀한 인연이로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강좌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터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강좌및법회를 개설할 전국의 불교대학및 사찰은 전화 접수 하세요.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주 1회 강좌 / 법회는 월 1회)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대구) 1899-9532

뜻깊은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넌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소] 1,200×600×1,300 (가로×세로×높이)mm
 - [중] 1,600×700×1,700 (가로×세로×높이)mm
 - [대] 1,700×800×1,800 (가로×세로×높이)mm
- <대(대)에는 반야용선조각이 추가됩니다.>

- 연락처 010-9195-1044 / 070-7563-3898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로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